

인터뷰 고희영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장

“주체적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매진”



고혜영 광주 장애인복지관장이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해 네트워크 강화와 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광산구 장애인체육회 인사·조직관리 등 경험 네트워크 강화·프로그램 개발 등 사회적 관계 확대 목표

“장애인이 주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혜영 광주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장(49·여)은 평소 지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고 실현하는 ‘경계를 허무는 복지관’을 만드는 게 꿈이다.

장애인, 사회복지 분야와 거리가 있는 임상병리학을 전공했지만 ‘장애인 복지’에 대한 열정과 관심만은 누구 못지 않게 뜨겁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고 관장이 장애인 복지에 뛰어든 것은 지난 1997년 대학 졸업 후 담양의 한 장애인복지관에 임상병리사로 취직하면서부터다.

평소 혈액 분석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그는 종합검진을 통해 장애인을 직접 만났다. 그곳에서 이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대했고 주변 동료들과 장애인, 보호자의 호응이 잇따랐다.

고 관장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체력 과정에서 놀라거나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며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당시를 되돌아 봤다.

광주가 집이었던 그는 보다 좋은 근무 환경을 위해 광주의 한 종합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기대와 달리 임상병리에 대한 매력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했다.

이 때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일반행정직 분야 공모가 눈에 들어왔고 여기에 최종 합격하며 본격적인 장애인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2007년 12월 이곳에서 장애인체육회 관련 회계·기획·인사·조직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맡았던 그는 행정업무가 서툴렀지만 동료들에게 적극 물어보며 하나 둘씩 노하우를 쌓아 나갔다.

또 전남 22개 시군 장애인 관련 수영·달리기·배드민턴·탁구 등에 생활체육자를 배치하고 장애인

인실업팀(분봉·배구 등)을 지원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매일 왕복 1~2시간씩 광주와 무안을 오갔던 그는 점점 지쳐 갔다. 육아와 가정, 그리고 일을 병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이에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산구장애인체육회 등으로 이직했다.

그는 광산구장애인체육회 행정지원팀장 시절 전남도장애인체육회에서 경험한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됐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켰고 광산구 주관 ‘사회적경제박람회’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한마당’에 참여해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에도 매진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광산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 체육 발전에 기여한 선수와 지도자, 관계자를 선정해 격려와 감사를 전하는 ‘2024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상 시상식’에서 체육진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역 특화형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와 자치구 유일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 종목 상해 보험 가입, 지역 사회 행사 연계 장애인 체육 홍보 부스 확대 등에 대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광산구 장애인복지관장에 취임한

고 관장은 지금은 탈(脫) 시설 자립 지원, 장애인 고용 등 지역 장애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 교육, 연구개발, 최종증발달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그는 “장애인들도 맛집, 사람이 많은 곳에 가고 싶지만 엘리베이터·화장실 부재로 일상생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며 “이들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영역에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 복지관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 관장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선도적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속 가능한 사업 육성 등에 매진하겠다”며 “장애인의 주체적 삶을 위해 네트워크 강화와 조직화를 통한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 말차 산업화 속도... 고품질·가공 경쟁력 강화 논의

농기원 심포지엄 개최...재배·가공·유통 전반 체계화 모색

전남 말차 산업이 수요 확대 흐름에 맞춰 고품질 생산과 가공·유통 체계 고도화를 통한 산업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일 차산산업연구소에서 ‘전남 말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열고 시장 확대에 대응한 생산·가공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차 재배농가와 관련 단체, 유관기관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최근 말차 시장 성장 흐름과 전남 차산산업의 대응 과제를 공유했다. 말차는 건강과 웰빙 소비 트렌드 확산

과 맞물려 기능성과 프리미엄 식재료로 주목받으며 국내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카페·디저트 산업을 중심으로 음료와 베이커리, 기능성 식품 등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산업적 가치가 확대되는 추세다.

심포지엄에서는 일본 주요 차 산지의 생산·유통 사례를 비롯해 말차 가공제품 시장 전망, 고품질 원료 생산과 품질관리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재배 단계부터 가공·유통까지 전 과정의 품질 기준을 정교화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논의가 모였다. 또한 단순 원료 생산을 넘어 가공제품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차산산업연구소에서 ‘전남 말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 심포지엄’을 열고 시장 확대에 대응한 생산·가공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이번 심포지엄에 개발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026여수세계세삼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

“여수삼박람회 성공 개최 힘 모은다”

박문옥 도의원, 챌린지 동참...예산·점검 의회 역할 강조

박문옥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2026여수세계세삼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며 의회 차원의 지원을 밝혔다.

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 3일 ‘2026여수세계세삼박람회’ 성공 개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섬의 가치와 해양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여수세계세삼박람회는 전남 등부권을 넘어 도 전체 섬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행사를 계기로 섬 정책의 방향과 실행력

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 역할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전남도의회는 제도 정비와 예산 지원, 사업 추진 점검을 통해 박람회 준비 전 과정을 뒷받침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성일 전남도위원을 지목하며 박람회 홍보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2026여수세계세삼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도지구와 개도, 금오도 일원에서 열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시민 결 목록히 헌신하는 ‘복지 동력’ 응원 시, 사회복지사 700명 한마음 축제...복지발전 공로 22명 표창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의 날’(3월30일)을 기념해 3일 북구 첨단체육공원에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가 주최,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3일 열린 행사는 사회복지 증진에 헌신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정환 복지건강국장, 정석왕 한

국사회복지사협회장, 안호철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 종사자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사회복지사 선서, 사회복지 발전 유공자 표창, 체육행사 순으로 진행했다. 유공자 표창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종사자 22명(시장상 6명, 의장상 6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상 5명, 광주사회복지사협회장상 5명)에게 수여됐다.



광주시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최근 북구 첨단체육공원에서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및 제4회 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기념식에 이어 사회복지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 종사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

운세 (음력 2월 19일)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게시판

결론 △김두한(화순군 산림과장)·윤영경씨 장남 김인호(완도군청) 군. 오백만(전 광주공고 교사)·이계순(전 장성군청) 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 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삼마로 글로리아에 당홍 1층 라비야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시니어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지원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를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올레너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48년생 일이 많았으니 아침부터 서둘러라
60년생 주변 사람들이 귀하를 이롭게 한다
72년생 모르는 데 큰 이익이 숨어 있다
84년생 헛소문으로 조바심이 날 수 있다
96년생 소망하는 일을 이룰 수 있다

51년생 지인의 꾀에 속아 손해 보니 신중하라
63년생 어떠한 유혹에도 중심을 지켜라
75년생 앞으로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다
87년생 추진 사업 교착 상태에 빠진다
99년생 뜻하지 않은 금전 지출 하는 날

54년생 추진하던 일 순조로움을 탄다
66년생 연인과 여행을 떠나지 말아라
78년생 부동산 마음에 있더라도 서둘러 말라
90년생 가족들이 이해야 내 뜻을 알아줄 것

57년생 이 세상에 득불정근 없는 것임을 알라
69년생 자녀에 관한 일로 오해가 시작 될 것
81년생 재물은 곧 귀하의 몫이 되리라
93년생 금전 운용이 순조로워진다

49년생 지금은 억울해도 참아야 함이라
61년생 자녀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73년생 의사가 통하지 않아 마음이 생기겠다
85년생 성급한 계획은 후일 후회
97년생 미리 행거두는 습관이 필요

52년생 이미 해둔 거래, 취소당할 가능성 있다
64년생 좋은일로 집을 떠나 이동하게 될 것
76년생 손재주, 특히 거러쳐 부도를 주의하라
88년생 아직은 준비과정이니 무리하지 마라

55년생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처하라
67년생 직장에서 먼저 술선 수범해야 한다
79년생 가까운 이로부터 조언을 구하라
91년생 연인 사랑 결정할 때

58년생 가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70년생 금전 운용이 비상이 걸릴 운세
82년생 나의 신용이 회복돼 신임이 따른다
94년생 이성하고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이다

50년생 금전 투자 한 번 더 생각하고 결정하라
62년생 배우자의 사고로 인해 힘든 날
74년생 뜻하지 않은 문서를 받는다
86년생 뒷사람이 해주길 바라지 마라
98년생 뜻하지 않은 용돈이 생길 운세

53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승진(거래) 할 것
65년생 연인 때문에 잠시 고통을 따르리라
77년생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부심하라
89년생 그 목표는 옳지 않으니 빨리 버려라

56년생 배우자에게 어려움을 털어 놓으라
68년생 후배가 새 계획을 세우면 동참하라
80년생 자녀 문제였으니 근심하지 말 것
92년생 친구들과 과음은 손해를 부를 수 있다

59년생 가족간의 건강에 이상 월할 조심할 것
71년생 금전 이익이 증대돼 화석이 만연하다
83년생 문서에 신중하게 도장 찍어라
95년생 후배와 한 약속 꼭 지켜라